

안전한 교통에 즐길거리 '풍성' 서울 관광, 코로나 직전 수준 회복

1월 외국인 관광객 90만명 방문
서울윈터페스타 등 볼거리 가득해
오세훈 시장 '세이프서울'도 효과
내년까지 관광객 3000만명 목표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앞 월대에서 관광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시

올해 1월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90만명을 기록하면서, 코로나19 이전 대비 102% 수준을 회복했다. 최근 대한민국 정치·사회적 이슈로 인해 '관광 분야가 위축되리라는 우려와는 달리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 모습이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9년 1월 88만명이던 서울 방문 외국인 관광객 규모가 지난 1월 90만명을 넘어섰다. 71만 명이던 작년 1월과 비교해도 약 27% 증가한 수치다.

◆서울윈터페스타 등 즐길거리

서울은 올해 1월 트립어드바이저 '나 홀로 여행하기 좋은 도시' 1위에 선정되고 뉴욕 지하철 서버웨이 푸싱(Su bway Pusing) 우려 없이 안전한 세계 최고 수준의 '서울지하철 시스템'까지 주목받으면서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다는 인식이 더욱 확산됐다는 게 시청 측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이후 혼란스러

웠던 상황에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위해 서울윈터페스타 등 준비했던 축제를 취소하지 않고 차분한 분위기 속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충분히 제공했던 점도 외국인 관광객 발길을 끌었던 것으로 봤다.

시는 외국인 관광객이 오랫동안 머 무르며 서울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말 '특별환대주간'을 운영하고 여의도·광화문에서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운영하는 등 편안한 서울 여행을 지원하기도 했다.

시청 관계자는 "비상계엄 이후 오세훈 시장이 '세이프 서울(Safe Seoul)' 홍보에 기울였던 노력이 유효했다"고

말했다.

◆내년 '3·3·7·7 관광도시' 목표... "안전하고 즐길거리 넘치는 관광도시"

서울시는 오는 2026년까지 ▲외래관광객 3000만명 ▲1인당 지출액 300만원 ▲체류일수 7일 ▲재방문율 70%의 '3·3·7·7 관광시대'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이어온 공격적인 관광 마케팅을 올해도 지속할 예정이다.

시는 특히 서울이 혼자 찾아도 안전하고 즐길거리가 넘치는 관광도시라는 이미지를 전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연제나 축제'가 열리는 도시'라는 콘셉트에 걸맞은 사계절 축제도 준비 중이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취업 가뭄에 '단비'... 삼성 등 대기업 채용

국내 주요기업, 상반기 채용 나서
삼성, 16개 계열사 신입사원 공채
현대차, 생산·제조부분 집중 모집



삼성전자 서초사옥.

국내 주요 기업들이 내수 경기 침체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도 올해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에 나서는 등 인재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기업 경영 환경은 악화됐지만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 투자 확대 차원인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 LG전자, 한화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순차적으로 신입사원 채용에 나선다. 생산·제조, 사업·기획, 설계 등 다양한 직군에서 인재 채용을 진행하는 가운데 미래 사업을 위한 인공지능(AI), 스마트공장, 전기차 분야 인재 확보 경쟁이 눈에 띈다.

우선 삼성 공채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E&A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제일기획 ▲에스원 ▲삼성웰스토리 등 16곳에서 진행한다. 삼성은 지원서 접수 후 4월 온라인 삼성직무적성검사, 5월 면접, 건강검진 순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한다.

삼성엔 "더 많이 투자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이재용 회장의 경영 철학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도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있다. 현대차는 오는 14일까지 ▲생산·제조 ▲사업·기획 ▲경영지원 등 총 3개 부문, 68개 직무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한다. 현대차는 향후 울산 전기차(EV) 전용공장 준공과 스마트 팩토리 구축 등으로 기술 혁신이 가속화됨에 따라 생산 및 제조 부문 인재를 집중 채용할 계획이다.

기아는 경력 인재 채용에 집중한다. 기아는 10일부터 24일까지 ▲목적기반차(PBV) ▲정보기술(IT) ▲고객경험 ▲제조설루션 ▲특수사업 ▲재경 ▲오토랜드 광주 ▲오토랜드 화성 등 총 25개 부문 86개 직무를 대상으로 채용을 진행한다. 이는 전 부문에 걸쳐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할 우수 인재를 조



현대차그룹 양재동 본사.

기에 확보하기 위함이다.

송호성 기아 사장은 지난달 스페인에서 개최한 '2025 기아 EV데이'에서 고객 최우선 가치에 기반해 PBV 시장을 선도하는 맞춤형 모빌리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LG전자도 최근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냈다. 가전 사업을 담당하는 HS사업본부의 '기계·기구연구개발(R&D) 인력'으로 주방가전을 담당하는 '키친솔루션사업부', 세탁기·건조기 등 생활가전을 책임지는 '리빙솔루션사업부', 모터·컴프레서 등 가전 부품을 설계하는 '부품솔루션사업부', 차세대 가전을 연구하는 'HS연구센터' 등의 부서에서 각각 두 자릿수 인재를 선발한다. 17일까지 홈페이지 LG커리어를 통해 지원하면 된다.

한화오션은 오는 23일까지 4년제 대학 학사 학위 소지자 및 졸업 예정자 대상 일반 전형과 글로벌 역량이 요구되는 글로벌 챌린저를 통해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일반 전형 채용 직무는 설계, 생산관리, 사업관리, 경영지원 등 크게 네 부분이다. 글로벌 챌린저 전형은 설계, 사업관리, 경영지원 등 3가지 직무에 한해 지원을 받는다.

재계 관계자는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우수 인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미래를 위한 신산업 투자를 위해서도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학생 줄어도 의대 합격선 상승... N수생 영향

의대 합격선 97.9점... 3년째 증가
N수생 유입 등 최상위권 경쟁 치열

고3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상위권 N수생 유입으로 최근 3년간 의대 합격선은 계속해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일시적으로 고3 재학생 수가 전년보다 늘어나는 한편, 의대 정원은 증원 이전 수준 회복이 유력한 등 변수가 지속되면서 합격선 예측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종로학원이 지난 3년간 의대 합

격선을 분석한 결과, 수시 내신 합격선이 학생부교과전형 기준 2022학년도 1.26등급에서 2023학년도 1.21등급으로, 2024학년도엔 1.19등급으로 상승했다. 정시 합격선도 국·수·탐 백분위 평균 기준 97.6점에서 97.9점으로 올라갔다.

반면 고3 학생 수는 2022학년도 44만 6573명에서 2023학년도 43만 1118명, 2024학년도 39만 4940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전체 수험생 수가 줄어들어 산술적으로 입시 경쟁이 낮아져야 하지만, 최상위권 경쟁은 되레 더욱 치

열해진 셈이다.

이는 상위권 'N수생'의 대거 유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수능에서 N수생 규모는 ▲2022학년도 14만 9111명 ▲2023학년도 15만 7791명 ▲2024학년도 17만 7942명 ▲2025학년도 18만 1893명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이에 더해 2026학년도엔 '황금데지띠' 영향으로 출산율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해에 태어난 학생들이 고3이 되면서 경쟁도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현진 기자

"청년 맞춤 재테크, '서울영테크'서 배워요"

서울 청년에 체계적인 자산형성 지원
지원대상 2배 늘리고 프로그램 다양화

개인별 전문가 재무 진단과 1대1 상담, 실용 금융교육 등 서울청년들의 체계적 자산형성을 돕는 '서울영테크'가 지원대상을 기존 1만명에서 2만명으로 늘리고 프로그램을 세분화·다양화한다.

서울시는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서울영테크2.0'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가동되는 '서울 영테크 2.0'의 경우, 우선 서울 영테크 사업에 민간·공공기관 7곳의 특화교육과 상담을 연계해 교육효과를 높이고 금융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는 등 시너지를 창출한다.

청년자산증식 컨트롤타워인 '서울 영테크'가 재무 상담과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KB금융공익재단·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협력센터·신한은행·신한카드 등 민간기관에서 자산형성 첫 단계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초 경제·금융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청년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한 온라인 강의도 도입한다. 강의 프로그램은 오프라인 강의 중 청년 자산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청년을 위한 재무 기초 가이드 ▲미래유망산업 토크 보기 ▲내 인생 첫 부동산 강의 등 9개 과목을 우선 선정했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 해돋이 / 06:49 | 해질 / 18:35

3월 11일 (화) | 4 ~ 16°C | 수도권 날씨 | 서울 4/16, 인천 4/13, 수원 3/16, 평택 1/17, 파주 -2/15, 양평 0/16, 용인 3/16, 가평 -2/16, 동두천 0/16, 연천 -1/16, 백령도 4/9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中, 美에 2차 보복관세 시작... 농축산물에 10~15% 인상
▲미 이민국, 컬럼비아대 시위 관련 팔 대학원생 체포... 영주권 박탈 /사진 뉴스시

▲美특사 "하마스, 5~10년 장기 휴전 제안... 몇 주 내 협상 성과 기대"
▲러, 미지원 끊긴 우크라 공세 강화... 우크라, 수드자서 고립 위기

▲"프랑스, 러 동결자산 이자로 우크라군 무기 지원"... 러 반발
▲中 주택장관 "부동산시장 하락에 제동... 정책효과 나타나"